■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의 능력　　성경: 로마서 1장 16-20절

Tag: 복음,하나님의능력,변증,하나님,신약,로마서

>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
>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
>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
>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롬1:16-20)

여러분은 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세상에는 없다는 고백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결단하였는가?

만약 당신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네가지 물음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는가?

한때 유럽에서 성경말씀은 진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세상이 계몽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그런 사람들은 과학적 생각을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학은 사람들의 이성적 산물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과학은 물리적 실험 도구로만 증명되는 한계가 분명한 학문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물리적 세계가 치밀하기 때문에 아직 실험 도구로도 그 치밀함을 모두 밝혀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성이야말로 과학적으로는 결코 증명될 수 없는 가장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영역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셈이다.)

심지어 이들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으며, 누군가는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진화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신은 죽었다고 외치기 시작하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원숭이의 후손으로 믿어서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다. 신이 보이지 않으니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다.

실은 그동안 중세 교회가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신감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사람들은 왕들의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그 왕권을 인정하는 교황과 교회의 권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은 항상 있어 왔으나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기독교적이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눌려 있던 자들이 교회를 박차고 나갔고, 그들과 가정과 생업이 연관된 자들이 함께 나갔고, 권세와 교세에 억압받고 있던 자들이 덩달아 나갔고, 죄를 짓고 싶었는데 그 욕망을 억누르고 있다가 이제는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갔다.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 나가니까, 그들과 친한 자들도 같이 나갔다. 솔직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갔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남게 되었다.

또한 왕권이나 교권이 전체적으로 부패하고 무가치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영원한 가치와 영광스러운 가치들, 그리고 신성한 가치와 귀족적 가치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갑질이 싫었다. 과거 우리나라만 해도 양반들의 갑질은 세계사의 유래를 발견하기 힘든 갑질이었다. 개화가 되면서 그런 갑질들은 사라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귀한 양반정신만큼은 남겨져야 하지 않겠는가?(충성심, 효도, 학문에 힘씀, 예절, 군자의 도, 현모양처의 도,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 등; 그러나 좋은 것 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았음.)

마찬가지로 당시 기득권자들이 세상 바뀌는 줄 모르고 여전히 갑질을 하다가 왕권과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진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공산주의 운동과 맞물려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공격하는 추세이니만큼,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동시에 여러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면서 성장하였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다. 초대교회 상황에서, 또 당시 이스라엘에는 기독교인들보다 유대교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사실 그 자신도 예수를 가장 배척하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여행을 하던 중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경험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말았다. 그는 평생을 복음 전파에 바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절대적인 능력이었고, 모든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능력이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었다. 특히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다.(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에는 현재의 생명도 포함되어 있다. 즉,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지금부터 구원이다. 즉, 복음의 능력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지금 내 생명에 가장 강력하고 좋은 영향력을 부여한다는데 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건강하게 하는 능력을 준다. 병을 이기는 능력을 준다. 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과 영혼까지도 새로운 생명력을 준다. 정신에 신령한 생명력이 공급된다. 마치 사슬이 풀어진 다리처럼 각종 율법에 얽매인 생각이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습관적인 습성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초월한다는데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직 자기들만의 전유물인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생각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방인들이 특별한 은총을 받고 그들이 율법

을 지키고 스스로 유대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았다.

16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문화와 인종과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정의가 들어있다.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치루는 십자가의 의가 복음이며, 모든 인류를 거듭나게 하는 부활의 의가 그것이다.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다. 민족마다 의가 제각각이고, 심지어 사람마다 의가 제각각이다. 그런데 복음에는 사람들의 의를 초월한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분이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전지전능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비의 세계가 활짝 열린다. 즉,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열리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것도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한다. 이 신비의 세계는 사람이면 모두 경험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꿈은 꿀 수 있지 않는가?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마다 노력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자신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본능적으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만약 그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먼저 깨달은 사람이 도와주면 쉽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과연 과학이 언젠가는 뇌세포가 만들어내는 꿈의 영상을 모니터에 비춰주고, 생각을 워드프로세서에 그대로 기술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수는 없다.

결국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성적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이성이나 하나님은 증명되는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다. 쉽게 깨달아지는 것을 어렵게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내포되어 있다.

>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앞으로의 세계는 이 신비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임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차이가 크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가 크다.

나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